

세계지리 총평

당혹스럽다. 더프리미엄 6월 모의고사가 아닌지 확인했다.

쉽다. 시간도 너무 남았다.

수능이었으면 다 맞아야 하는 것은 확실한데, 6월이라 한 문제는 틀려도 될 것 같다.

6월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보통 모의고사에 수능에 안 나올 내용을 짬처리하는 경향이 강한데 역시나 그렇다.

보통 줄글 문항은 꾸준히 고딕체로 나왔는데, 여백이 너무 널널해진 탓인지 갑자기 명조체로 나온 것도 특이하다.

1번. 세계지도

특정 정리가 작년 한국지리 1번이 생각나는 방식같은데 쉽다. 역시나 올해 수능에도 세계지도는 안 나올 것 같다.

2번. 도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이 눈에 띈다. 그래도 생판 처음은 아닌 것이 2020학년도 수능 20번에 좌표로 나온 적은 있어서 반갑다. 당시에는 정답률 20% 문항이었지만.. 작년 9월에 등장한 도시별 바다 접경 여부를 좀 더 강화한 느낌이 든다. 브뤼셀을 모으면 은근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잡기만 하면 여전히 1페이지 수준이다.

3번. 기후 혼합

온대만 찍힌 것이 아니라 배로도 같이 찍었다. 그럼에도 지역이 3개밖에 되지 않아 수능 수준은 절대 아니고, 기후 개념 수준. 정답도 매우 쉽게 나온다.

4번.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2023학년도 수능 문제가 생각나는데, 현재의 수능 수준에 비해 너무 쉽다. 실제로 수능에는 작년만큼 깊게 물어보려고 미리 낸 것 같기도. 디트로이트 시카고 피츠버그 구분시켜도 정답률 50%는 나왔는데 좀 너무하다..

5번. 지리 정보 / 권역

1단원 문제가 두 문제 나왔다. 지리 정보 단독이 아닌 권역과 엮어 나오는 것은 독특한데, 별로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6번. 대기 대순환 / 대지형

작년 6월 20번같이 딱히 별로 알 바 아닌 세계의 특정 지형에 밀줄 짹쫙 쳐놓은 문제다. 대기 대순환이랑 엮은 것이 특이한데 할거면 무역풍 파악을 통해 라하이나 / 하나를 가려놓고 둘의 위치를 찾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7번. 대지형

정말 성의가 너무 없어 보인다..

8번. 종교

꾸준히 줄글로 내던 종교였는데 아주 약한 퍼즐을 도입했다. 네팔 2위 & 스리랑카 1위가 불교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9번.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여기도 낼 게 정말 많지 않은 단원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성의가 떨어지는 지점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국가에 A~D 찍어놓았다. '통곡의 벽'이 좀 특이한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 보인다.

10번. 경제 불록

수능 오류 이후 나올 일 없는 부분이라 역시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다. 성의도 별로 없다. 스위스가 2020년 EU를 탈퇴했다거나 MERCOSUR가 달러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 선지의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보인다.

11번. 건조 지형

7번 대지형도 그렇고 정말 성의가 없다. 자연지리에 해박한 사람이 아예 없었던건가? 애초에 자료 자체가 필요가 없다. 정답도 참..

12번. 기후 혼합

통합사회를 준비하는 것인지 서울과의 편차를 줬다. 보통 우리나라 관련한 것은 피했던 것으로 아는데.. 수능이었으면 기온 차이와 강수량 차이를 다른 변수로 뒀을 것 같다. 찍은 지역도 적고 변수도 적어서 문제 자체는 평이하다.

13번. 식량 자원

식량 자원 문제를 이렇게 주는 것은 수능특강에서도 보기 힘든 게으른 방식인거같은데.. 중학교 사회에 나와도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14번. 인구

양골라가 북반구에 위치하는지 남반구에 위치하는지를 인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꽤나 주객전도된 문항같다. 총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관계를 통해 답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그 외 부분에서 여려모로 수준이 높지 않아 보인다.

15번. 에너지 자원

석탄을 잡는 것 자체는 너무나 쉽고 미국과 독일 중 어디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더 높은지가 사실상 전부이다.

16번. 라틴 아메리카

국가 매칭도 쉽고, 선지도 특별한 점은 없는 듯하다.

17번. 한대 기후

줄글 개념 문항. 난이도도 너무 쉽다.

18번. 도시 + 인구

매칭만 잘 하면 너무 쉽다.

19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름 유일한 변별 문항이라 할 수 있겠는데, 막상 수능에서 컷을 내릴 수준의 변별 문항은 아니다. (가), (다)는 잡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나)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인도양과 접하고 적도가 지나니 대략 캐나겠구나 하면 맞다. 실리콘 사바나는 어디에 있던 내용일까.. 아디스아바바와 라고스의 인구를 비교하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냥 나이지리아의 깡 인구가 많아서이건, 텍스트에서 급격한 도시화에 대한 언급이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4번은 단원명을 생각하면 고르면 안 될 것이고. 수능이었으면 그ند 합답형으로 냈을 듯? 소거법으로 어지간한 선지가 다 지워지니 솔직히 변별력이 높지는 않아보인다.

20번. 몬순 아시아

역시나 이번에도 수능 이전에 가옥 구조, 의상, 식문화같은 쉬운 부분을 모의고사에 미리 처리하는 듯한 느낌이다. 작년에 낚시를 시도했던 송끄란 축제의 개최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선지가 있다는 것이 조금 특이사항. 정답은 매우 쉽게 나온다.